

꿈꾸는 7반은 위대하다!

3 학년
7 반
읽 걸 쓰

2024

인천송의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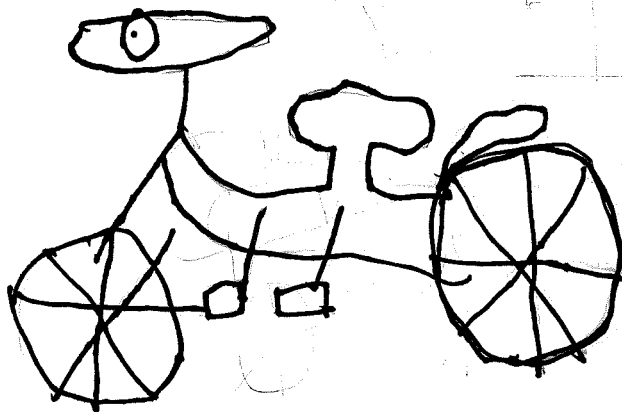
목 차

1. 축구선수 노아	1
2. 달리기 잘 하는 리우	3
3. 고양이를 좋아하는 민경	5
4. 귀염뽀짝 귀여운 예환이	7
5. 웃음 많은 윤아	9
6. 손재주 좋은 의현이	11
7. 맛있는 현석이	13
8. 드론쇼를 좋아하는 민결이	15
9. 강아지를 좋아하는 나율이	17
10. 귀요미 송예빈	19
11. 유튜브 하는 도윤이	21
12. 행운이 가득한 하윤이	23
13. 행복한 지용이	25
14. 돌멩이 좋아하는 채이	27
15. 쌍쌍바 하이	29
16. 피아노도 잘 치는 귀염 뽀짝한 누리	31
17. 축구를 좋아하는 동건이	33
18. 학원 싫은 시우	35
19. 네일아티스트 재윤이	37
20. 영리한 윤지	39
21. 행복한 율이	41
22. 행복한 진혁이	43
23. 레고를 좋아하는 준원	45
24. 운동을 잘하는 현우	47
25. 그림을 좋아하는 최보미	49
26. 체육을 잘하는 마라	51
27. 송의초가 좋은 예준	53

(축구선수노아)의 나는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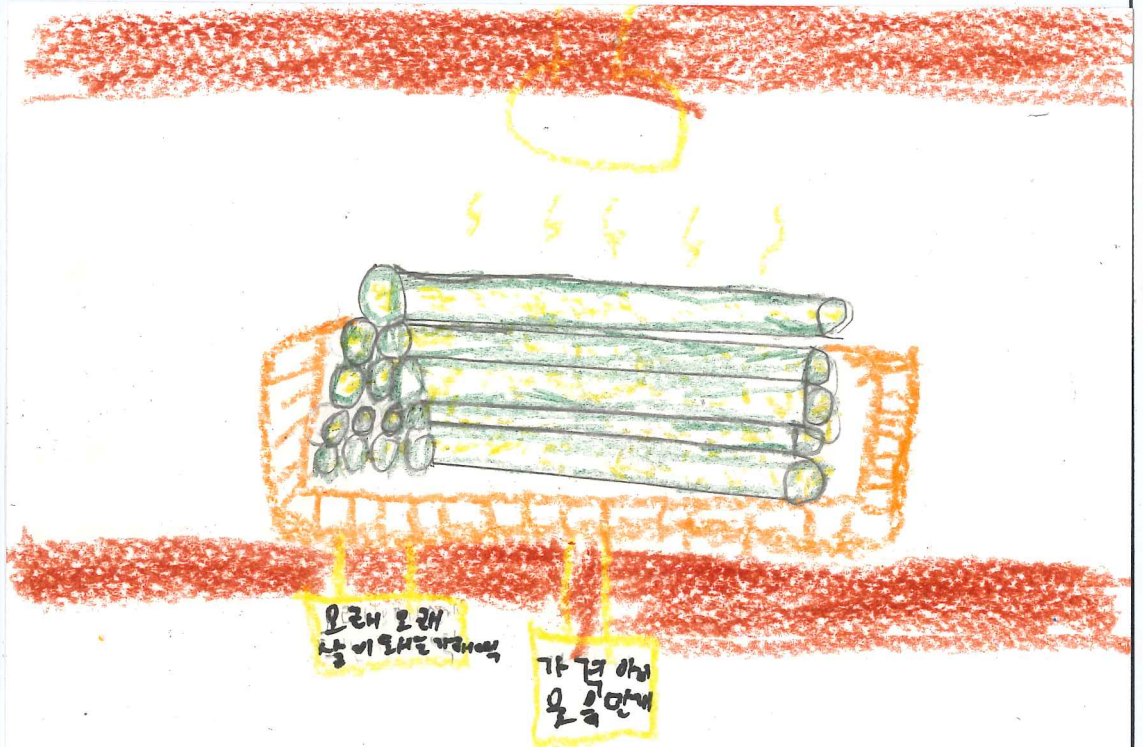
제목 : 나도 자전거를 타고 싶다
 저는 문득 머리속으로 자전거를 타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형이 쓰던 자전거를 주셔서, 기분이 땅에서
 하늘을 뚫는것 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밖으로 나가 미추홀구청으로가
 친구를 만나다, 갑자기 제에게 제 자전거는
 고물이라고해 기분이 속상했다 제가 부모님께
 말을 했더니 갑자기 부모님께서 자전거의 사
 주셨다. 바로 나가 미추홀구청으로 가는데 놀랐
 이 H도. 있었는데 주변 타보면 안돼주고해
 거절을했는데 카~ 나이다를먹는 기분이였다,

새로산자전거



(미국의 노바)의 온책읽기

책이름 : 만복이네 떡볶이



책이름 : 정보 만 보



(달라달라하는 리우)의 나는 3학년

제목 : 3학년 | 학교 동안 기억에 남았던 일

내가 기억에 남았던 것은 TOP5로 하겠다.

TOP5. 줄넘기 왜냐하면 내가 줄넘기를 좋아하고 평소에도 줄넘기가 재미 있어서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자주 한다.

TOP4. 컴퓨터 수업 왜냐하면 내가 2학년때 컴퓨터 방과 후 할 때 재미 있어서 기억에 남고 내가 전자기는 잘 만져서 기억에 남는 것이다.

TOP3. 쿠키 만들기 왜냐하면 쿠키만들었을 때 재미있고 가족들이랑 집에 가서 먹었던 걸 생각해서 기억에 남는다.

TOP2. 국어 선생님이 모셔 주셨던 날 왜냐하면 그 때도 텔레비전 보러 갈거야! 책도 엄청 재미있었고 놀이한 것도 재미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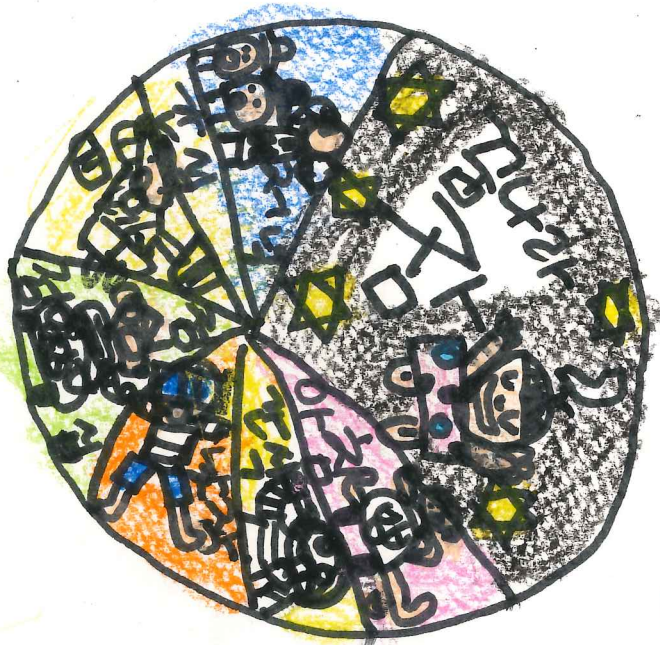
TOP1. 체육대회 왜냐하면 친구들과 함께 뛰고, 협동하고, 놀고해서 좋았다. 이어달리기를 할 때 무궁화를 승부욕이 솟아서 엄청 빠르게 달렸다 우승도 2번인가 3번인가 우승해서 너무 좋았다. 내가 기억에 남았던 일 TOP5는 여기서 끝이다.



체육대회

리우 (필요를 살려)의 온책읽기

책이름 : 겁보만보



知母育子

바다에 많은 어선이 출몰하고
바다에 많은 어선이 출몰하고

책이름 : 소동파는 호랑이



(고양이를 좋아하는 민경)의 나는 3학년

제목 : 생조수영

오늘 체험학습이다. 그래서 체험학습 준비도 하고 텀벙텀벙 물 놀이를 하러 버스를 타고 갔다. 드디어 도착했다. 그래서 수영복을 입은 후 물과 친해지고 몸 구석구석 땀났다. 생조수영을 했다. 난 잠수와 수영을 배웠다. 그렇지만 잠수와 수영을 잘 하기 때문에 배웠다. 잠수하면서 들어 올림에 수영도 못 참아서 해버렸다. 배타기도 해 봤는데 재미 없었다.

그리고 물위에 뜨기도 했는데 무서웠다. 그리고 판 잡고 수영하기! 수영은 너무 긴데 판 잡고는 너무 어려웠다. 너무 즉위해서 나오았다. 씻고 옷도 갈아 입고 수건으로 닦기도 했다. 잠깐 의자에

앉았는데 수영 강아지/씨가 따뜻한 물 한잔을 주었다. 감사히 받고 마셨다. 이를 재능 못 해서 아쉽고 수영을 더 하고 싶다.

(사랑방만경)의 온책읽기

책이름 : 겁보 만보



책이름 : 바보꽃



(귀염뽀짝 귀여운
이예환이)의 나는 3학년

제목 : 3학년 새학기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준비를 초스피드로 끝냈다.

집을 나가자마자 가슴이 쿵쿵쿵쿵 뛰었다.
학교 가는길에 2학년 친구도 만났는데
몇반이냐고도 많이 물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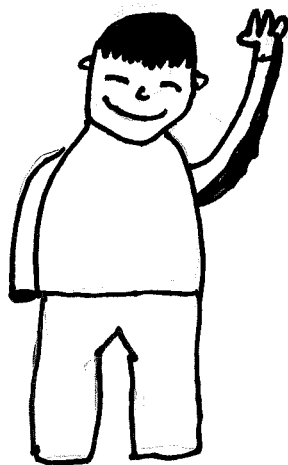
2학년 때도 그랬지만 담임선생님이 무서울까봐
걱정되었다. 그리고, 반배정 실패할까 두려웠다.

선생님 성함은 최은주 선생님이네
친구들은 매우 착하고 나랑 친한 친구 4명이
같은 반이 되었다.

선생님은 착하시고 오.예....쁘.스.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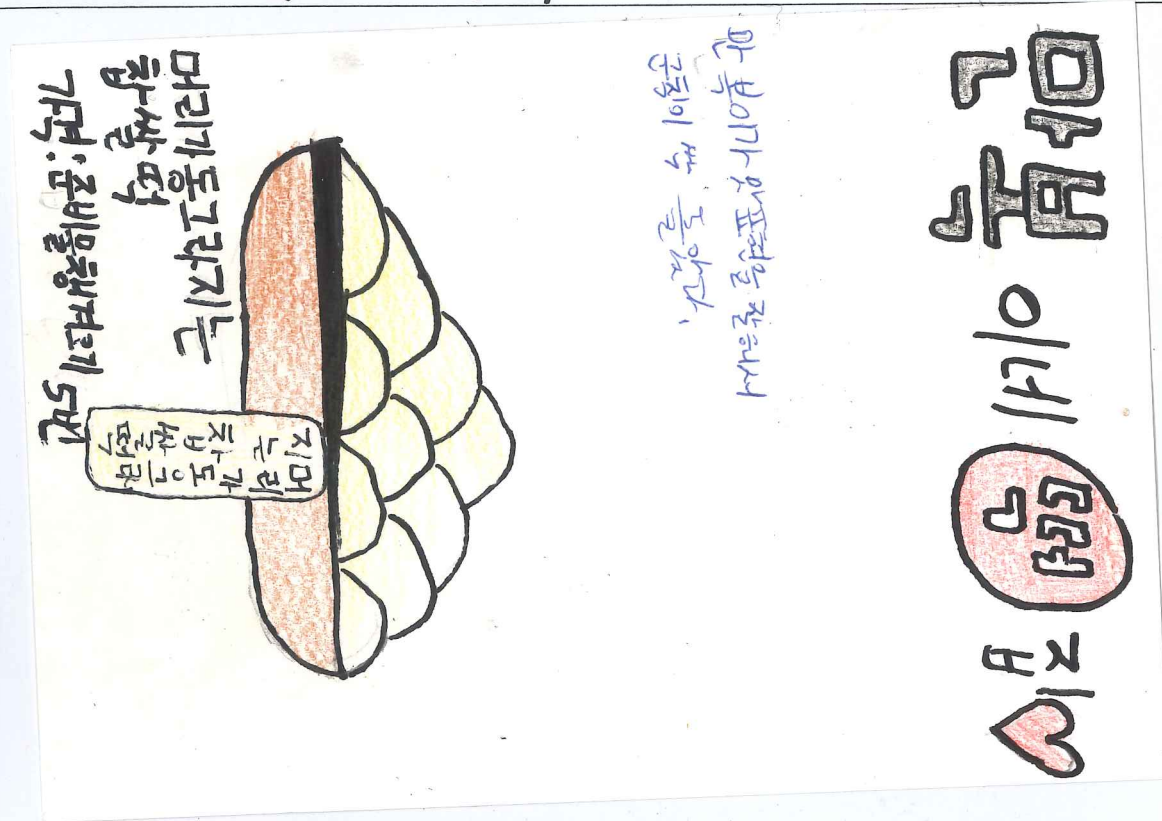
"아들아! 친하게 지내자!"

안녕!



(귀여이 예화이)의 온책읽기

책이름 : 만복이네 펄집



책이름 : 바보꽃



(웃음 많은 훈아)의 나는 3학년

제목 : 7반 체육대회

오늘은 체육대회 끝났다. 달리기을 했는데,

남자애들이 뛰면 여자애들이 응원하는데.

남자 애들은 응원도 안 하고. 수다 떨기만 하니

속상했지만 열심히 해서 우리 7반이 이겼다.

엄마 아빠 자로기로 했는데 안왔다. 엄마랑 이-빠

가 미안하다고 맛있는걸 사주었다.

안니도 칭찬을 해주었다 참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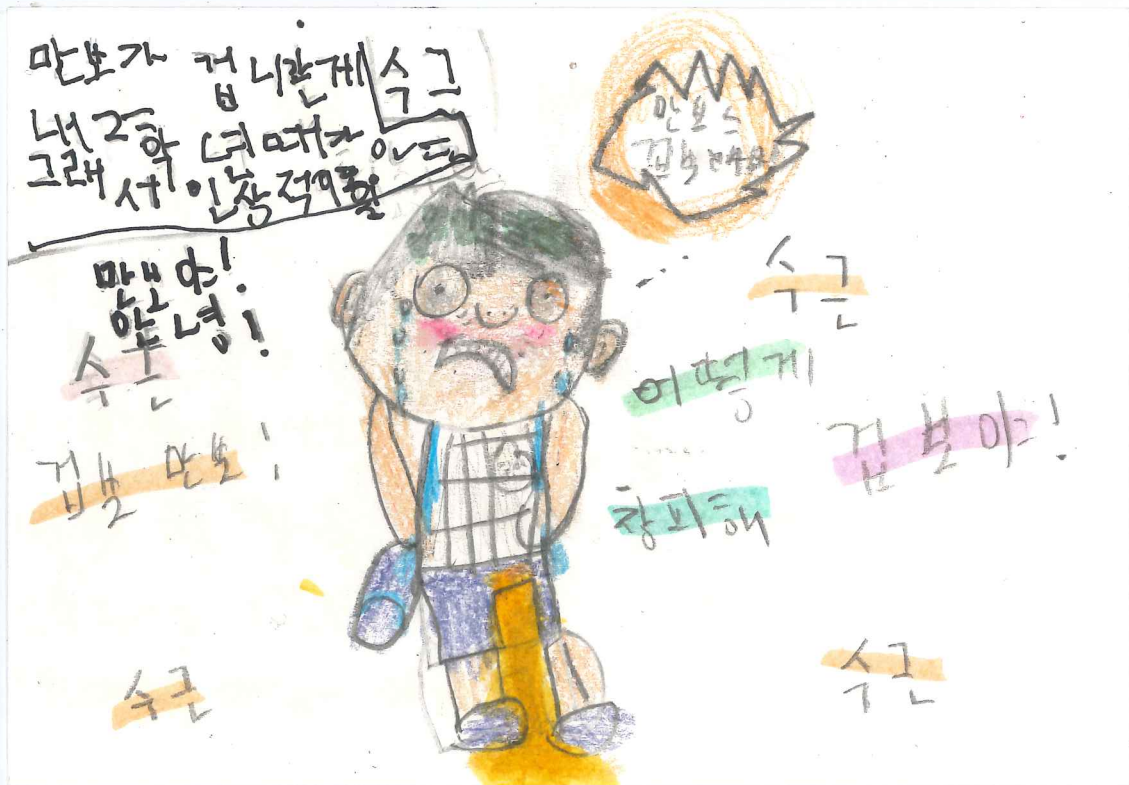
체육대회에서 달리기 거제와 재미있었다

체육대회를 잊고 싶다.



(귀엽운 유아)의 온책읽기

책이름 : 검은 눈보



책이름 : (17번 애벌레) 17번 애벌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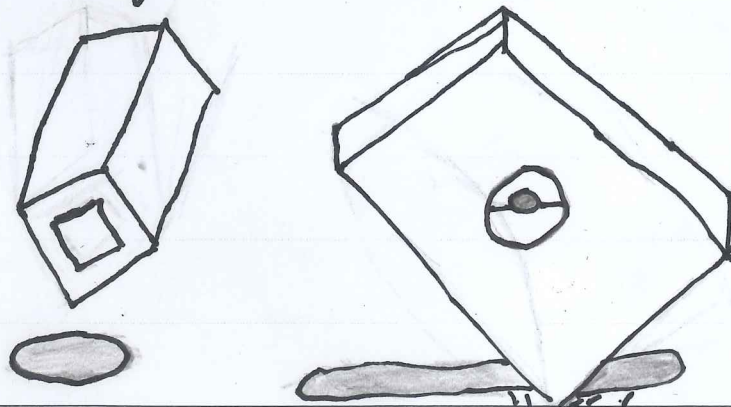
1. 애벌레가 다니는 길너무 재미있다.



(손재주좋은 의현이)의 나는 3학년

제목 : 떨리는 꿈동이

오늘은 정말 떨리는 꿈동이다. 순간 너무 긴장 되고 떨리지만 어
찌 겠냐 이미 선정이 되서 지금 여기에 서있는데 전
혀이도 마찬가지 일거다. 시간은 많았지만 공장 내일
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2학년때 썼던 코스튬을 보강
하고 퀄리티를 높여서 간단하게 작업하고 만들었다.
시간이 많았다는걸 알았다면 그때 보다 더좋은퀄
리티로 만들수 있었을것이다. 진핵이랑 자원이랑 수
다도 떨고 장난도 쳤지만 마음 한편에 두려움은가
시지 않았다 혹시 모를 두려움에 진핵이에게 잘 할
수 있냐 물어보니까 못할 자신이 있다고 말해서 왜
그러게 말하냐고 물어보니까 이러면 더잘할수 있다면
서 계속 이렇게 말해서 좀 황당 했다 근데 어찌겠
나 그것도 방법인데 들어가는 순간 너무 긴장되고 떨
렸다. 끝나고 나니 선생님이 잘했다면서 칭찬 해주셨
어 기분이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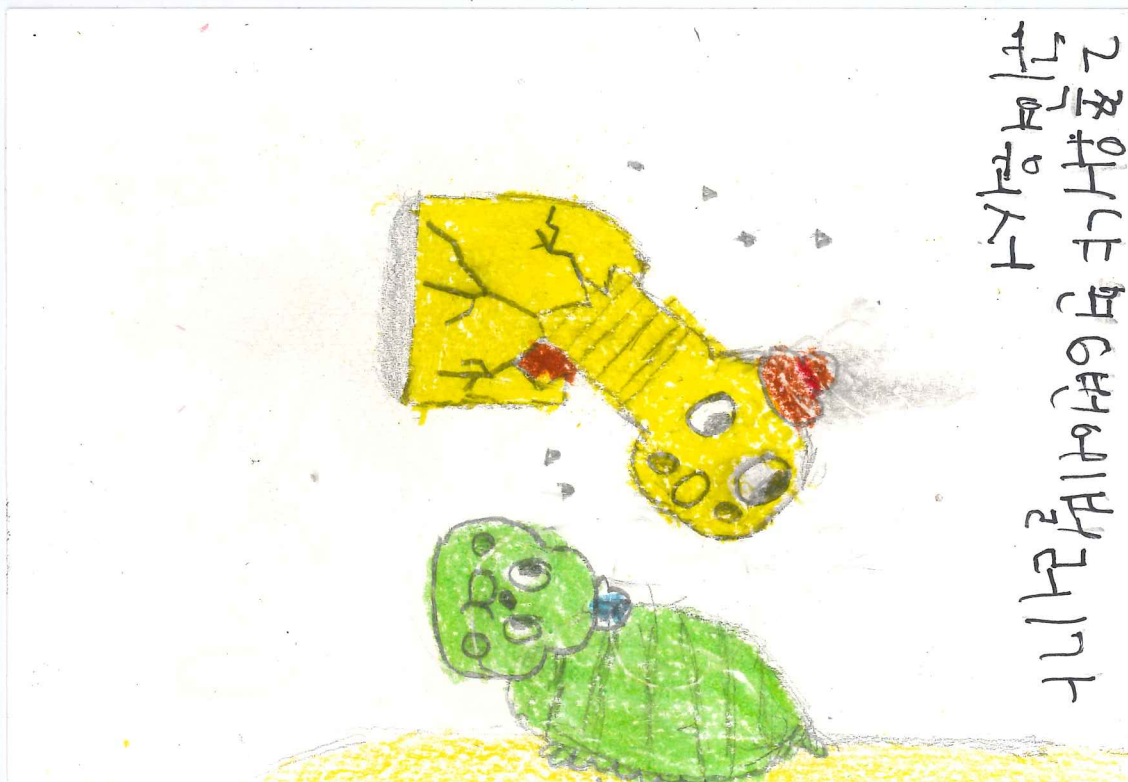
종이접기작품 (의견이)의 온책읽기

책이름 : 소꿉친구랑이

고슴도치가 너목귀엽고정반아서그려주세요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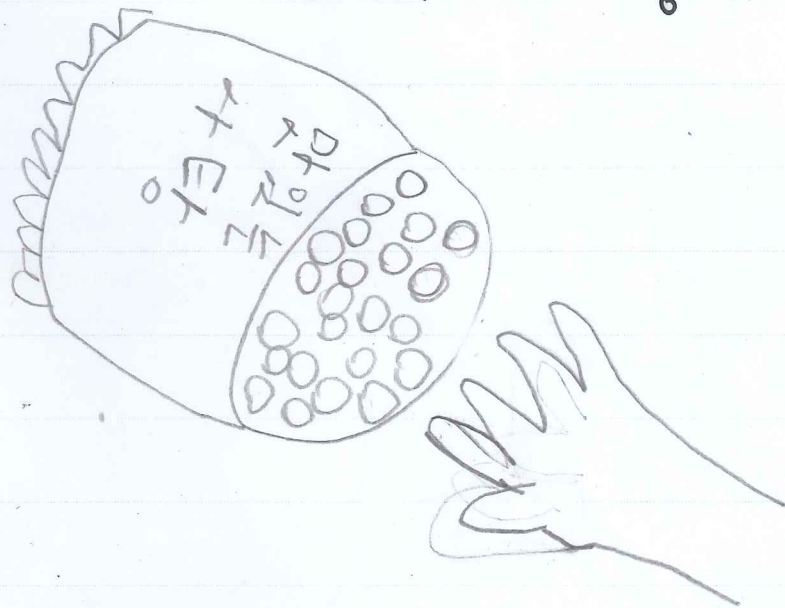


책이름 : 나는 3학년2반7번에벌레



(비밀연석 이)의 나는 3학년

제목 : 나만의 비밀
난 친구와 놀다 친구가 맛있는 사탕이 있다고
해서 친구가 화장실 갔을 때
하나 빼먹었다. 그때 마음이
조마조마 했다. 다 행이 걸리지
않았다. 그래도 미안해서 맛있는 걸
사주었다. 이제 정당한 것이다. 나도 먹고
친구도 먹고 지금은 어디에도 없는
친한 친구다. 나중에 말해야 하나
고민이다. 친구도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거다. 비밀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네 비밀이 너무 많으면 안된다
1~2가지만 가지고 있는 게 좋다



먹을 걸 좋아(하는 현석)의 온책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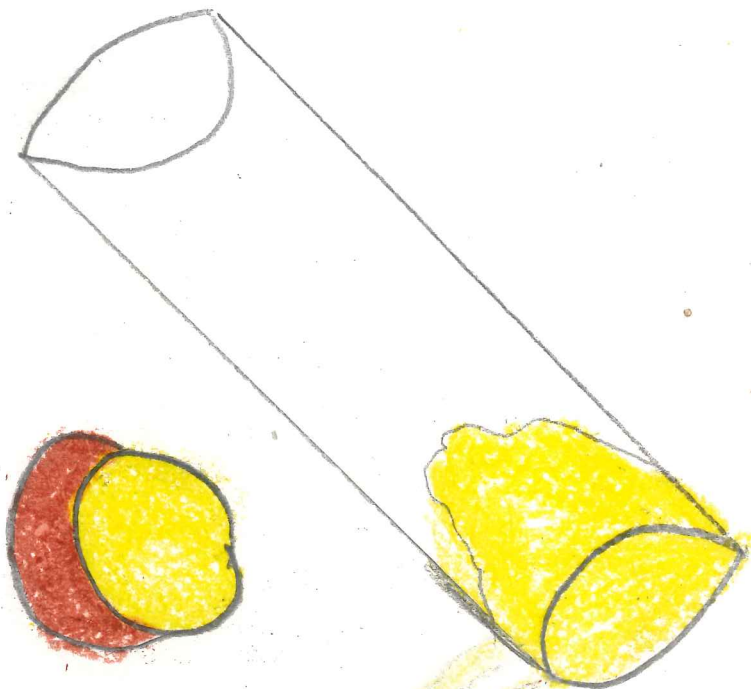
책이름 : 바보꽃



나 꽃이 피었으면
해서 바보
라는 글씨와
꽃을 그렸다

책이름 : 만복이 에떡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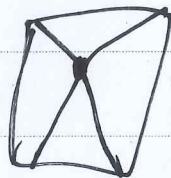
키가 작고
아이들이
만복이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아이)의 나는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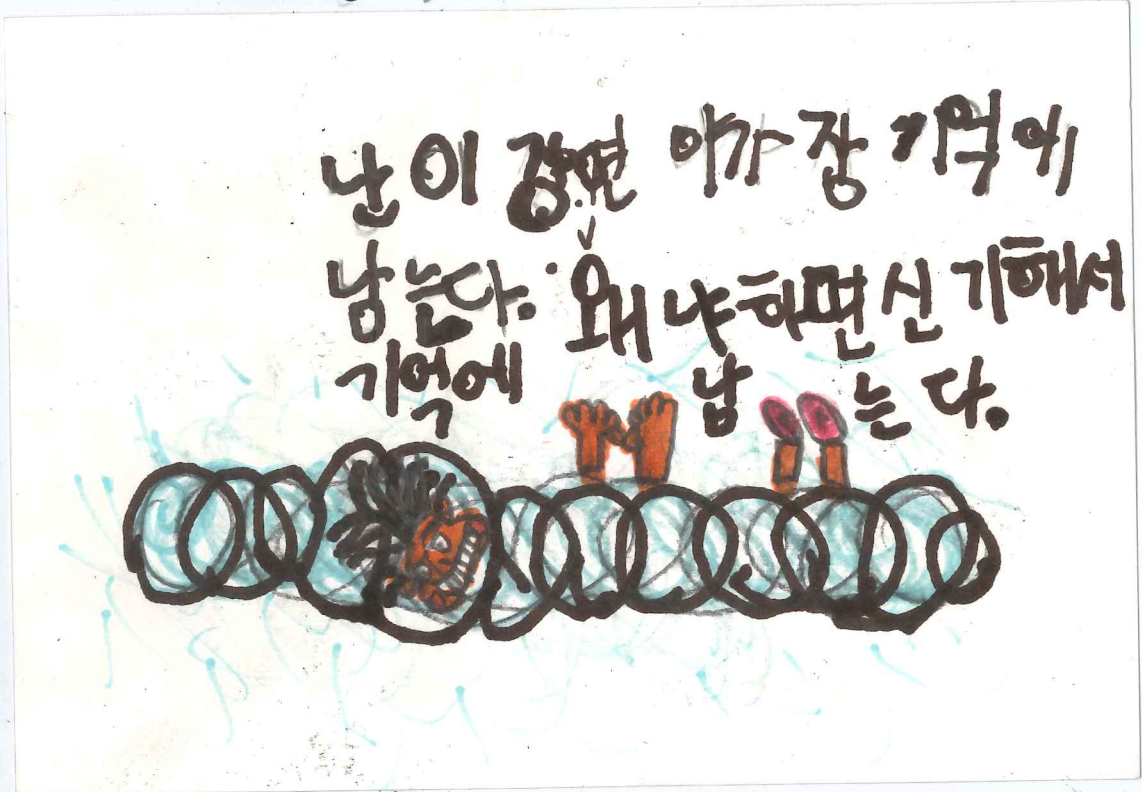
제목 「아름다운 친구사랑」을 읽고
아인아 너는 건우를 좋아하지 만
건우는 널 엄청 좋아해서 만능이 속상하지?
괜찮아! 아인아, 너가 요즘 보다 건우한테
더 잘 해 주면 돼. 그럼 분명히 건우랑
점점 가까워 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다른 친구 들도 만능이 사귄 수 있을 거야.
고 있을 때 말이야.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 숙제 잘 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 건우하고 행복해! 아인아!
그럼 안녕.

9월 26 일
목요일 민결 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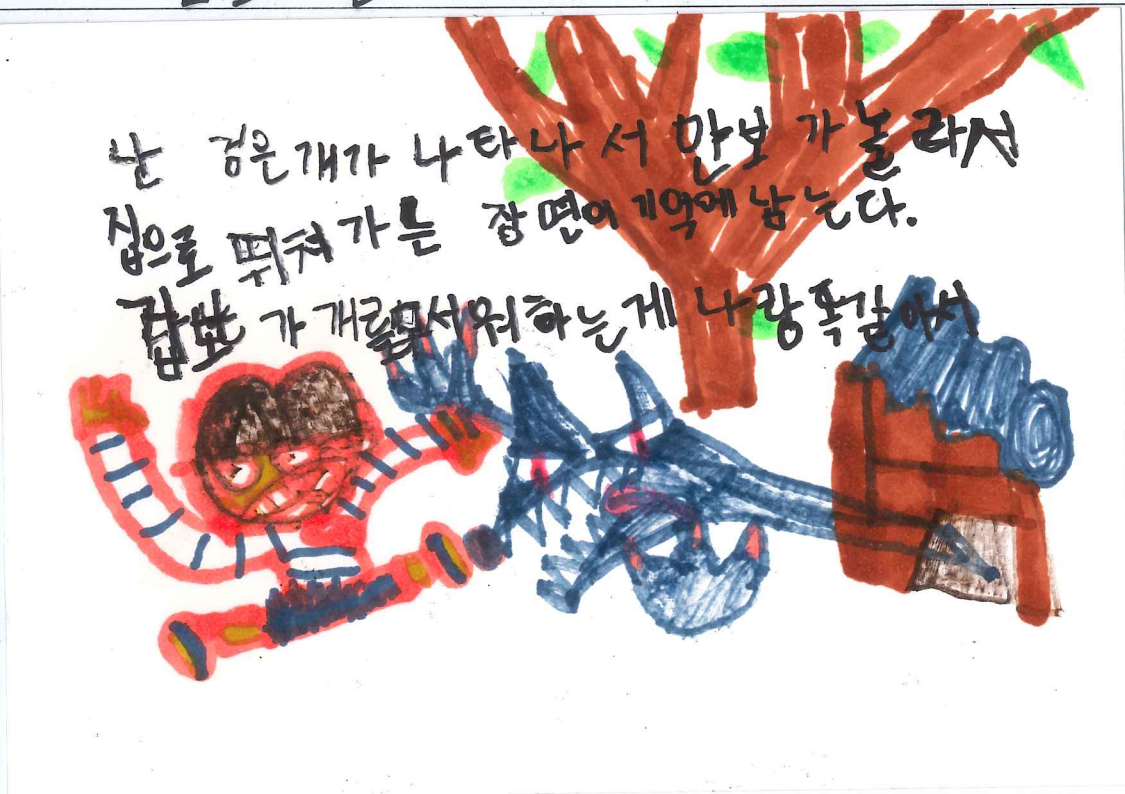


(마술사판별)의 온책읽기

책이름 : 마술사판별



책이름 : 겁보 만보



☹️ (하하를 좋아하는나들이)의 나는 3학년

제목 : 생존수영

생존수영을 가는날이다.

내가 원래 물을 무서워 한다.

생존수영을 간다가 너무 무서운 것이다.

그래도 용기를 냈다.

수영도 하고 미끄럼틀도 타고 입수도 하고 심폐소생술도 했다.

엄청 재미있었다.

보트도 탔다.

음파는 너무 어려웠다.

윤지는 잘해서 너무 부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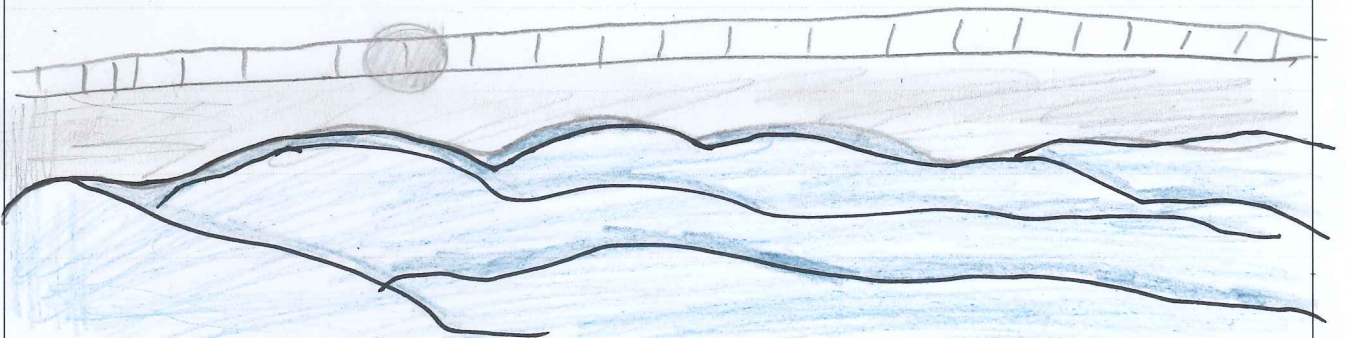
음파 할때 물을 먹었다.

기분이 안 좋았지만 재미있었다.

나도 윤지처럼 잘할수 있을까?

요즘 수영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ㅎㅎ



(캐피바라나유이)의 온책읽기

책이름 : 뽕밭은호랑이



책이름 : 바보꽃



귀요미(송예빈♡)의 나는 3학년

제목 : 생존수영간 날

월요일에 생존수영을 갔다. 거기에서 뭐 할까?

궁금했고 설렘했다. 근데가서 보트탈출도

해보고 보트를 타기도 했다. 그리고

친구들과 손을 잡고뜨기도 했다.

그리고 선생님이 사진도 찍어 주시고

정말 재밌었다. 스펀지를 잡고

수영도 했다. 근데 수영이 잘 안됐다.

민경이는 수영을 잘 했다. 민경이는

수영을 많이 해보았나 보다.

민경이가 갑자기 입술이 파랗고

아파 보였다. 민경이는 먼저 쉬기로 했다.

그래서 민경이가 너~무 걱정이 됐다.

민경이가 다시 건강해지면 좋겠다. 화요일

에도 생존수영을 갔다. 근데 민경이는 아

파서 못 온다고 했다. 그래서 민경이

없이 갔다. 화요일에는 미끄럼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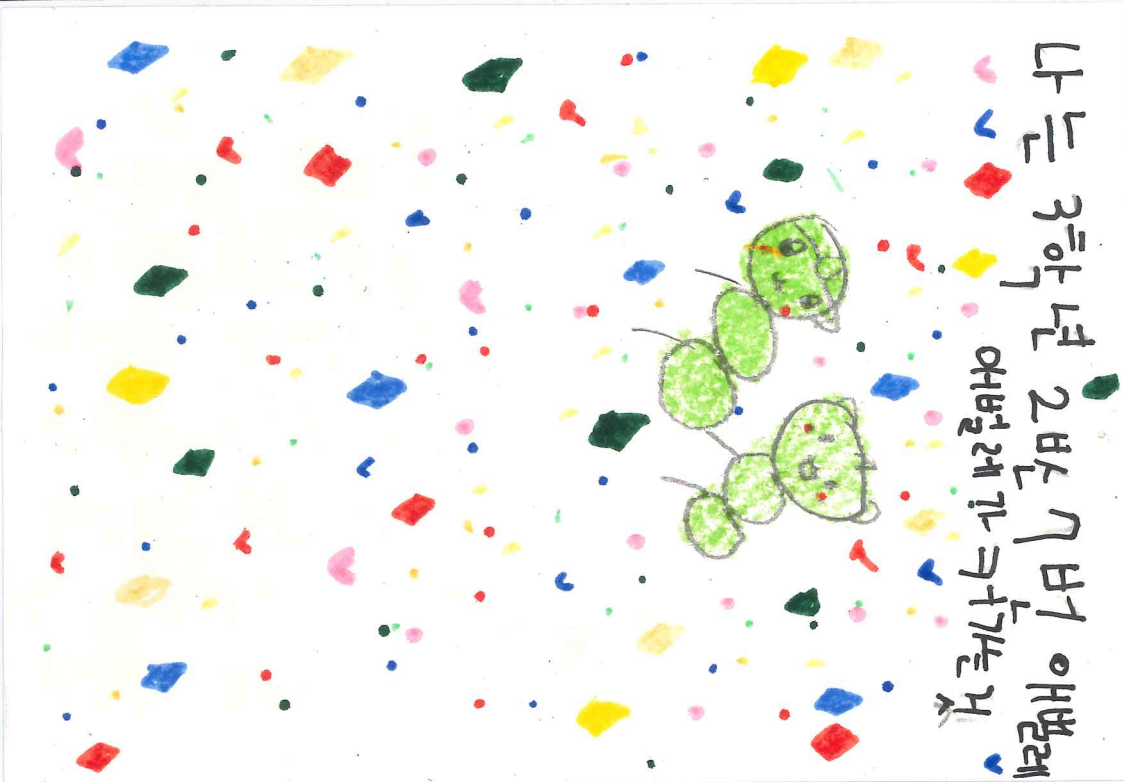
타고 심폐수생술도 했다. 그래도

민경이가 없으니 너~무~심심했다.

민경이가 아프지 않으면 좋겠다.♡ 사랑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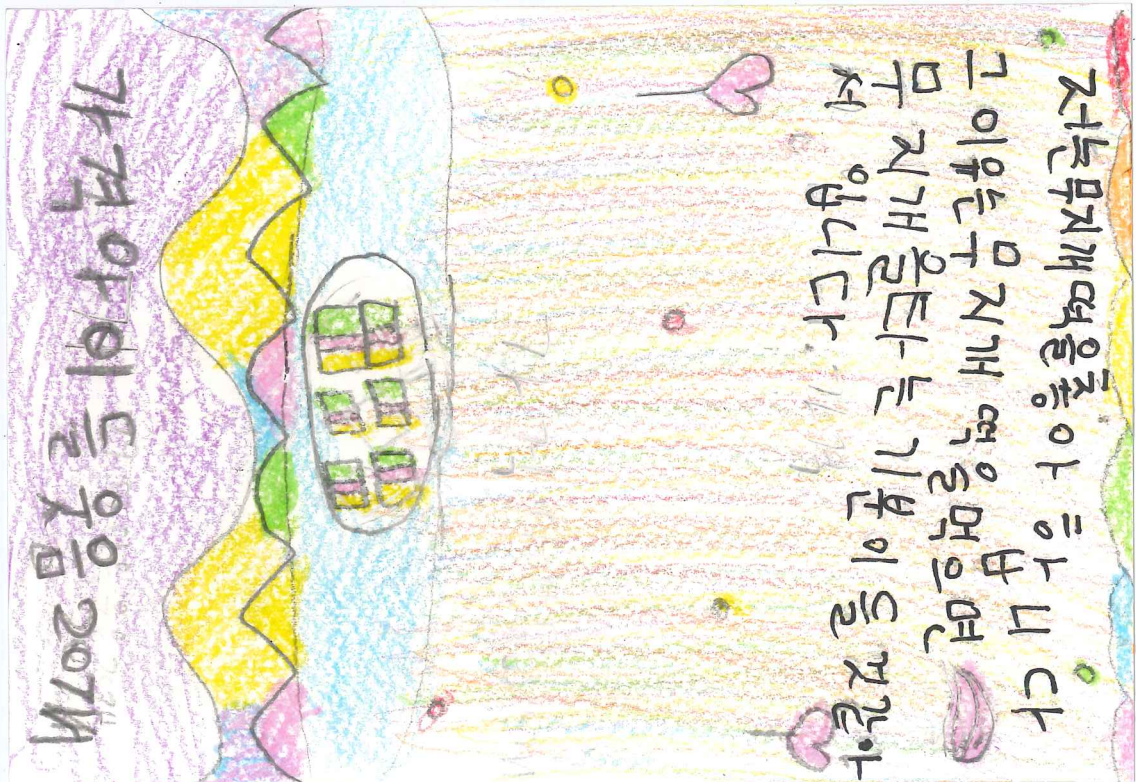
가깝지 않은 (소.예비하루)의 온채읽기

책이름 : 나는 3학년 2반 7번 아별레



나는 3학년 2반 7번 아별레
아별레가 좋아하는 거

책이름 : 만복이네 떡집



그것은 무지개색을 띠고 있는
그 이유는 무지개색을 띠고
무지개색을 띠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가깝지 않은 2007년

(유튜버하는 동물)의 나는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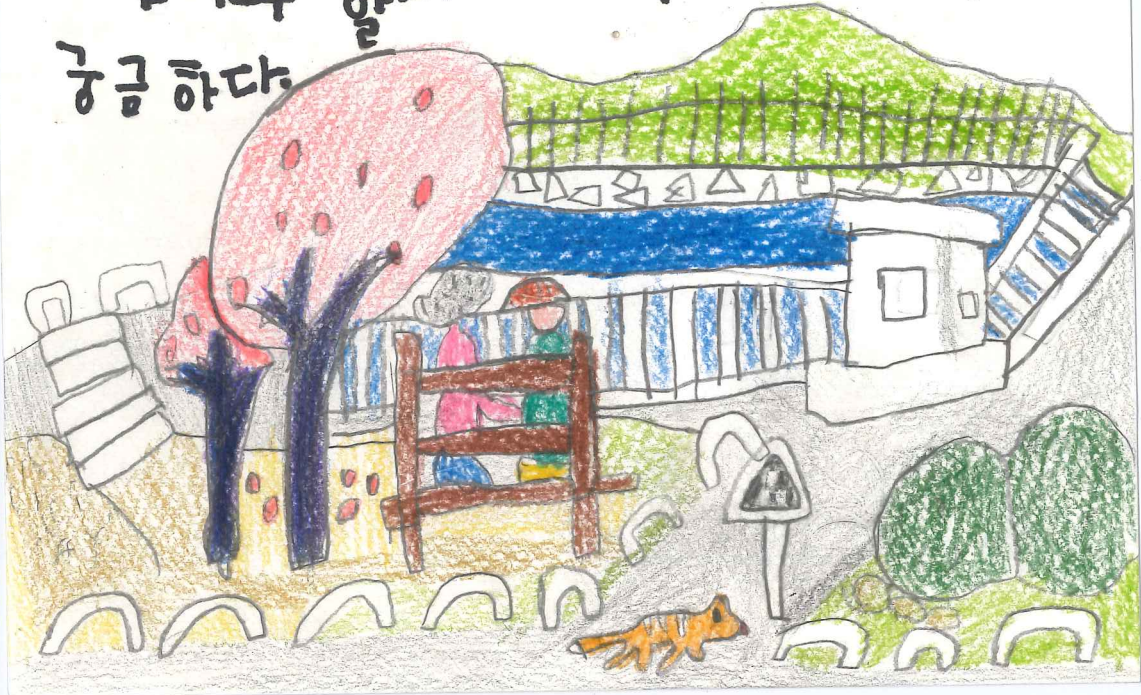
제목 : OKINAWA, 오키나와

오키나와에 갔다. 오키나와 국제거리에서 음식, 기념품을 보고 차를 빌렸다. 오키나와에 유명한 것은 쥬라우미 수족관이고 재포니즈 게코이다. 호텔에서 '세스코 비치'를 갔다. 세스코 비치 앞에 바다 수영장도 있었다. 그런데 밤이 오니까 비가 오는 것이다. 그 일차에 일어나서 호랑나비 보다. 희귀한 긴 꼬리 제비나비를 보았다. 그리고 네오 파크 동물원에 갔다. 그러다 친구들이 좋아하는 카피바라 영상을 찍었다. 그리고 바다를 가서 나비고기, 두동가리돔, 트리거 피쉬, 탱종류를 보고 하우스 게코, 달팽이를 보았다. 3일차 바다에서 놀고 수영장에서 놀았다. 4시쯤 쥬라우미 수족관을 갔다. 코코넛 크랩, 소라게, 블랙해삼 등등 특이한 것이 있었다. 희귀한 해마, 고래상어, 잔타가 오리, 모래뱀상어를 보았다. 위험한 생물. 바다뱀, 해파리, 스킨 피쉬가 있었다. 심해를 테마로 한 수조도 있는데 거긴 야광들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 일본 같이 친하게(?) 주고 받는 외래종 비파를 보았다. 이때 뱀기계에 가서 고래상어 뼈를 뽑은 게 기억난다. 아베사와 재포니즈 게코 잡는 걸 실패한 게 아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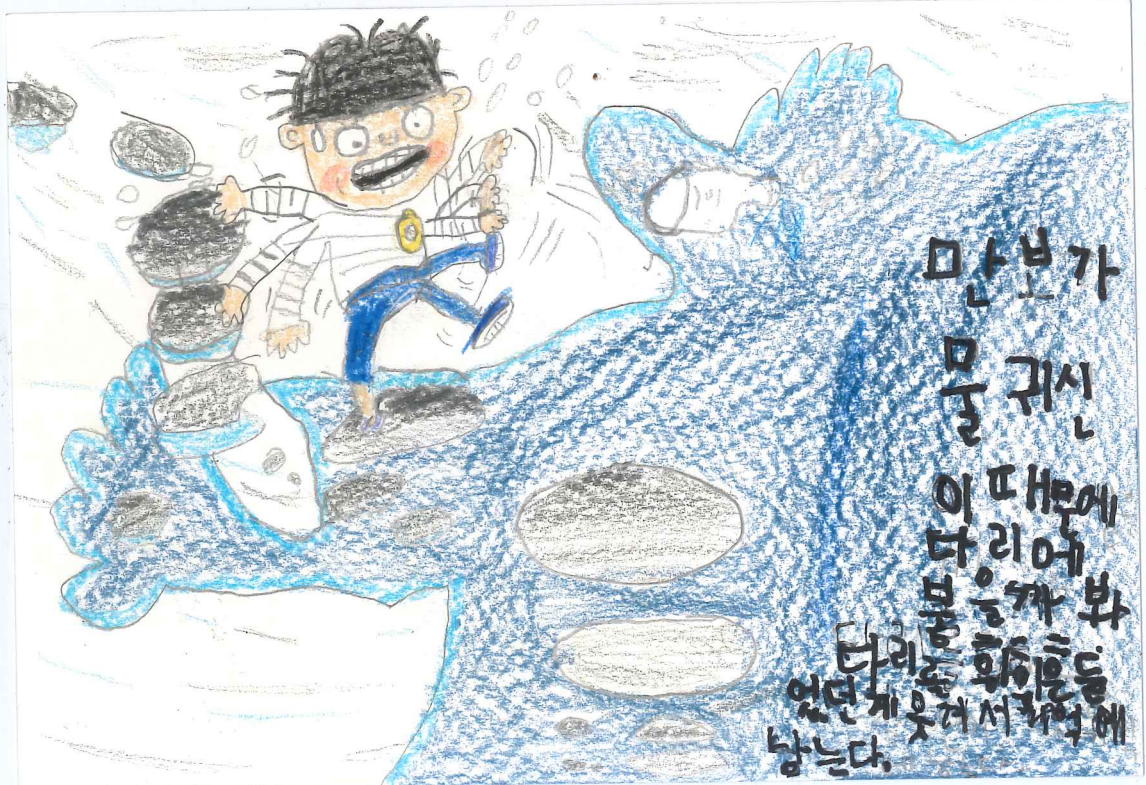
(유튜브 하느님)의 온책읽기

책이름 : 바보 꽃

가람이와 할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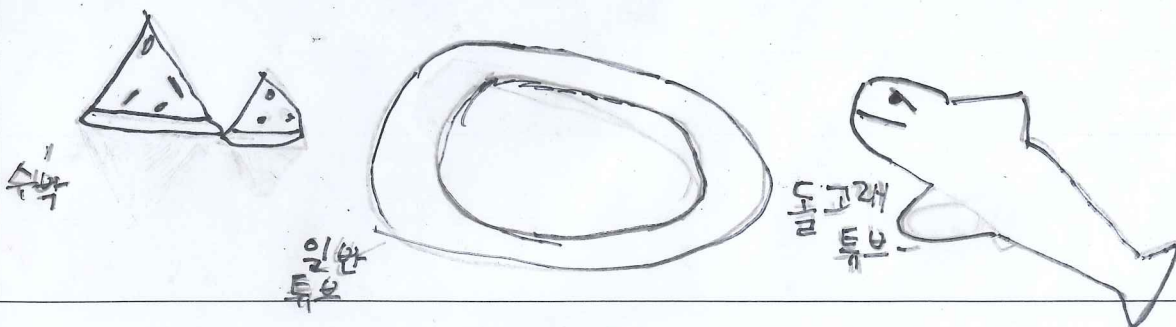
책이름 : 겁보 만보



(행운이가득한하루)의 나는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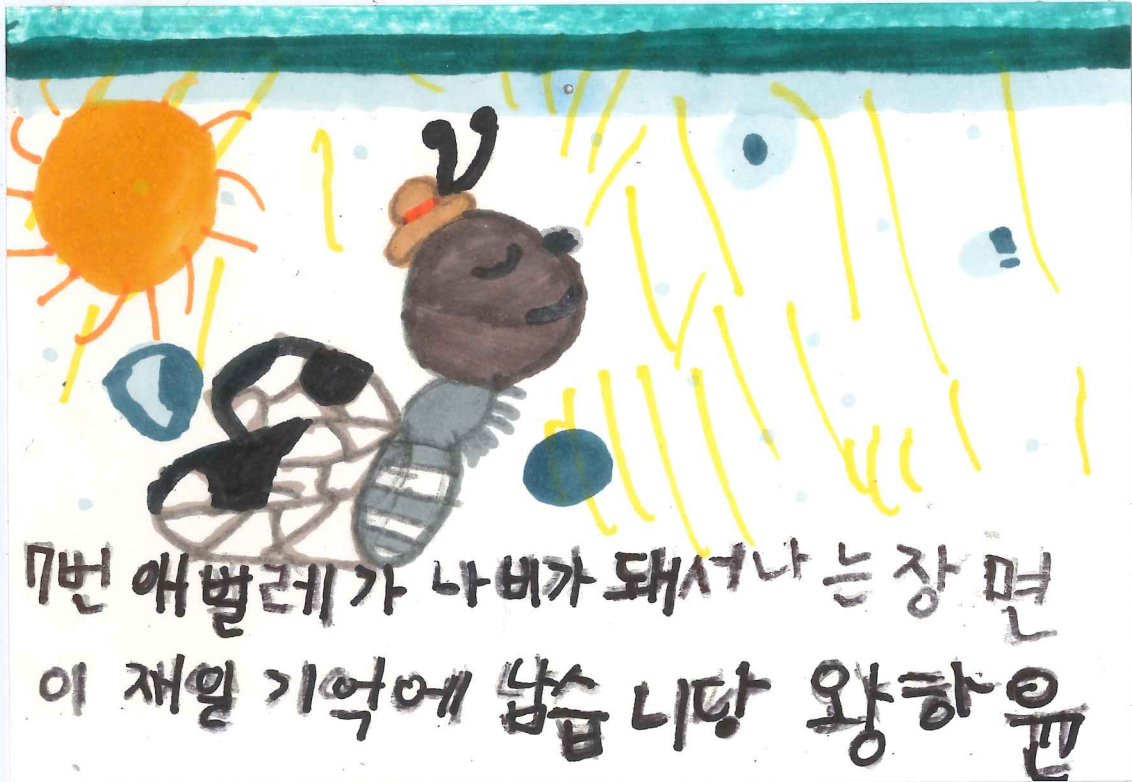
제목: 수영장 ☺

내가 여름방학에 가고 싶었던 수영장을 가봤다.
 나와 사촌언니와 엄마와 이모랑 가서 놀고 있었는데
 사학년 오빠랑 일학년 동생이 같이 놀자고 해서
 공으로 피구를 하고 엄마가 과자를 사주셔서
 오빠랑 동생이랑 나누어 먹고 있는데 엄마가 선크림을
 자꾸 바르라고 해서 짜증이 났다. 오빠랑 동생이 가고
 공이 수영장두로 빠져 이모랑 언니랑 가위바위보 해서
 전사람이 공을 가지러 가기를 했는데 6판 중에서
 나는 2번 지고 언니는 1번 이모는 3번 졌다. 돌고래
 튜브를 탈때마다 넘어져서 힘들었다.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다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도를
 할 것만 같았다. 이모가 공을 너무 멀리 보내서
 공을 또 내가 꺼내왔다.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다리에 쥐가 났지만 재미있고 신났으니깐
 된 게야 라고 생각했고 즐거운 수영장이었다.
 수박도 너무 맛있었다.



(행복한하루)의 온책읽기

책이름 : 나는 3학년2반 7번 애벌레!



책이름 : 겁보 만보



(행복한 지용)의 나는 3학년

제목 : 만복에게

만복아! 왜 나쁜 말을 자꾸 하세요?

떡은 맛있네요! 나도 떡을 싶다.

근데 왜 욕을 했어요?

너보다 더 나쁜 애가 있어

우리 학교에 너랑 똑같은 애가 두명 있어.

그 애들도 떡을 주서 좋아하게 해주

고라고 사귀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너가 떡을 제발 주서 안 사줬으면 좋겠어

만복아! 무슨 떡이 제일 맛있어요?

나는 무자떡이 제일 맛있어.

나쁜 친구들이 너처럼 떡 먹고 좋아하면

좋겠어. 만복아! 잘해 줘. 너까지 잘 지내.

2024년 9월

지용 92

(흥분한지용)의 온책읽기

책이름 : 허브 꽃

나는네
가죽아
가아
해서
재밌
다시
다
웃게다



책이름 : 겁노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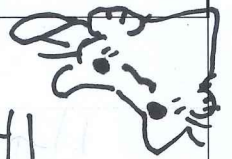
702중



새이중은제
타이어/스/
하 은 거와
비 스타와
나 / 중은
후면 주은
대 / 해커
무심거

(돌병이 좋아하는)의 나는 3학년

제목 : 경주



우리는 경주에 가려고 새벽 5시에
갔다. 졸려서 자려고 했는데 잠
이 안 온다. 그냥 핸드폰으로
놀았다. 졸려서 잠이 왔다.
눈을 떠보는데 벌써 6시가 되었다
식당에 가보는데 옛날 집처럼 생
긴 뽕 요리병 같이 생긴 것이 있어
서 보려고 했지만 전상 같아서
그냥 잠았다. 된장찌개에
밥 넣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
다!! 한복 입으려고 갔는데
카페가 많았다 엄마가 말했
는데 경주는 그냥 봐도 예쁘다고 했
다!! 한복고르려고 했는데 하얀색
인 한복이 있어서 그바로 내가
입었다 3시가 다 되어서 숙소에서
다음에 수영 할려고 수영복입은 다
음에 수영장에 뭉개 뛰었다!!
달들이 커튼을 하고 병아리도 있거든
해서 행복했다!! 정말 추억이 많다!!

(쌍둥이 2내이)의 온책읽기

책이름 : 소담 등 비냘은 호랑이

차돌 탕이 진짜 맛있 겠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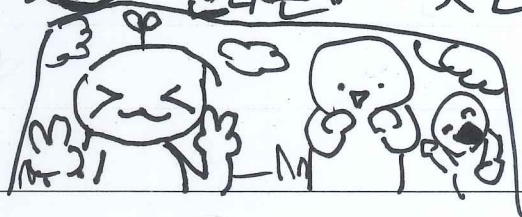
책이름 : 겁난마노



(쟁쟁바하이♡)의 나는 3학년

제목 : 추석연휴

추석연휴에 2박3일동안 경주를 갔다!!!
엄마가 길이 막힐꺼라고 새벽5시에 가서
길이 안 막히고 4시간 30분에 도착했다.
한복집에서 땡기머리를 하고 한복도 입고
불국사에 가서 다보탑, 석가탑을 봤다!
언니들이랑 나랑 채이가 한복을 입은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쁘다고 하고
외국 관광객들은 사진도 찍어갔다.
한복을 입으니깐 걸음도 조심스럽게 되고
너무 예뻐서 기분이 좋았다. 숙소로 돌아
와서 수영도 하고 맛있는 저녁도 먹고
즐겁게 놀았다♡ 다음날 황리단 길에 가
서 쇼핑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할머니께 체리빵 (선덕여왕이 체리를 좋아하
셨다고 했다.) 도 사고 찜성대도 봤다!!
경주는 우리나라 고분들이 많아서
건물을 높게 짓지 않는다고 했다.
너무너무 재밌고 신나는♡ 멋진!
여행이였다!♡



(쌍둥이 하이)의 온책읽기

책이름 : 겹보만보



책이름 : 만복이네 딱집



(피아노도 잘치고 귀염보살한 누리♡)의 나는 3학년

제목 : 제일 재미있는 우리반 수업

오늘도 재미있는 하루를 시작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2번째인 학교고, 첫번째는 학원이다. 오늘 학교에서 당황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겼다!!
교시는 수학이다. 원래 수학시간 시작할때 마다 하는 중이가 있는데, 바로! 나눗셈의 달인이다.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했다면 틀렸다. 조금 어렵기 때문에 풀어보면 알것이다. 나는 그래도 금방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내고 풀어냈다. 이시우가 본것 같았지만 기분이 이었다. 2교시는 국어이고 국어시간에는 책 읽기, 받아쓰기를 검사하는데, 나만 받아쓰기를 안한것이다,,,, 조금 창피했다 그리고 국어시간에는 3급시험을 봤는데 너무 떨렸다. 3교시는 체육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것의 1위! 정말 좋아한다. 원래 줄넘기를 해야하는데, 하지 않았다. 비가왔기 때문이다! 5.9일이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팀워크를~~ 맞춰야 했다. 4교시는 미술이었지만, 영어가 되어버렸다. 대신 클라우디아 선생님 이 오셨다. oh, my God! 근데 선생님을 가막아버렸다. 5교시.. 역시나 미술이지만 도둑이 됐다

도둑
책

(귀엽고 착한 누리)의 온책읽기

책이름 : 바보꽃



책이름 : 소동 밝은 호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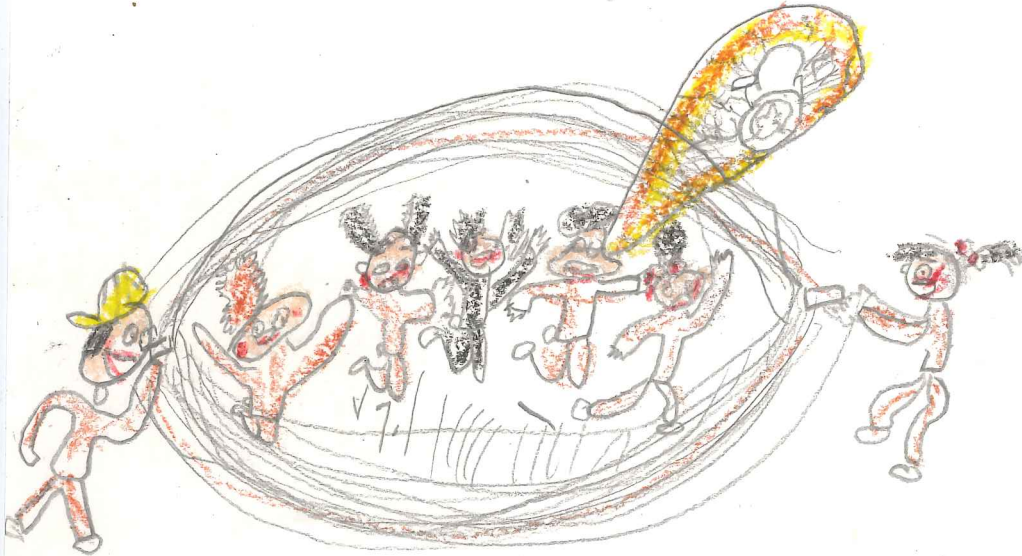
(축구를 좋아하는 동건이)의 나는 3학년

제목 : 3학년 새학기

3학년이 되어서 반에 가야 하는데 가
기 무서웠다. 친한 친구도 있어서 다행
이었다. 그리고 2학년 생각이 계속 났다.
선생님도 작하 신 것 같았다. 2학
년 때 같은 반이었던 노아랑도 같은
반이 또 되어서 신기 했다. 반 애
들은 다 작하 신 것 같고 교실도 바
뀌어서 신기 했다. 3학년이 되어
백 두 한 감정도 들었다. 그리고 갑
자기 2학년 생각이 나서 2학년
교실로 갈 뻔했다. 친구들과 즐겁게
놀기도 하고 학교를 계속 다니
면 더 많은 친구들과 친해질까
있다고 믿고 친구를 과 사 우
지 않을 거다. 이제 앞으로 행복할
것 같다.

(멋진 동건이)의 온책읽기

책이름 : 마법사 똥면



운동하는 걸보니 재미있어서 장면을 그려
니다.

책이름 : 바보 꿀



아인이가 먹물하데도 책상을 치운것은 네가 착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학원실용시)의 나는 3학년

제목 : 일본에 갔다 온 나

난 일본에 가려고 공학에 갔다. 난 공학에서 캐리어를
 쓰는 게 힘들었다. 우리 가족은 캐리어가 4개인데 3개
 를 맡기고 1개는 끌고 다녔다. 난 배가 고파서 연마 이
 바 빵집 편의점에 갔다. 라면을 먹고 싶은데 따뜻한 물이
 많구나. 그걸 사서 음료수를 사서 삼각김밥도 사 먹었
 다. 난 비행기를 탈 때 너무困해 걸어서 잠을 잤다.
 일어나서 도착해서 내렸는데 그다음날이 생각을 했다. '무
 브 터미널지?' 나만 이생각하는데 아닐 거다. 난 아이스림
 을 사먹고 버스를 타고 호텔에 도착해서 호텔에 누워서 너무
 편했다. 난 일본에도 가고 싶고 내가 아쿠아리움에 있
 다는 행복 제빵기 같이 그림이 많아서 기억에 남는다.

(학원 싫은 시위)의 온책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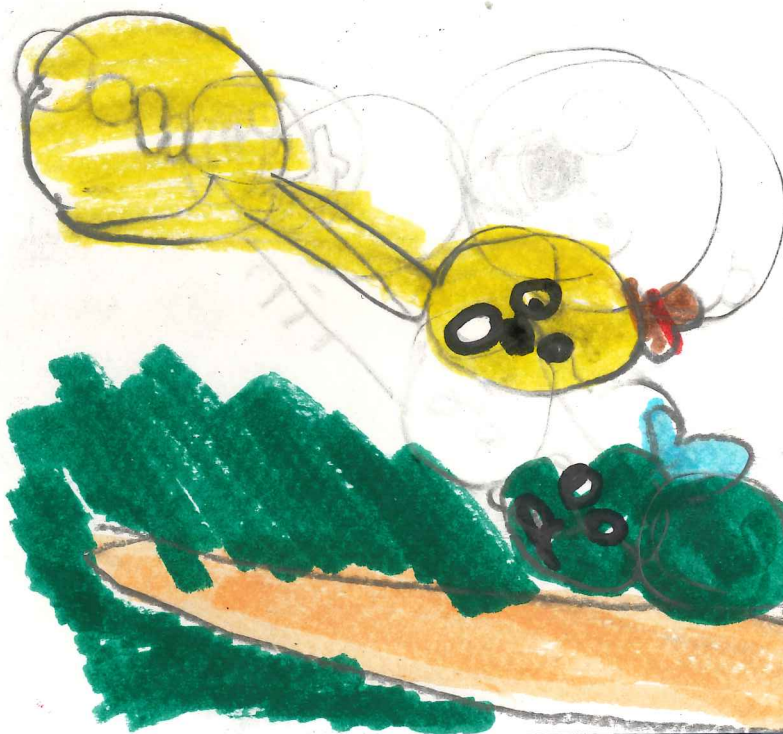
책이름 : 소꿉친구 호랑이 이

호랑이 가고 숨도 치를 먹은 줄 알고
도치 어게 다한 게 웃기다



작가: 이시우

책이름 : 나는 3학년 2반 7번 어벌러



호랑이
친구
이시우

(네이티브아티스트 지시문)의 나는 3학년

제목 : 가족

저희 가족 구성원은 엄마, 아빠, 나, 동동이 (반려
동물)가 있습니다.
엄마는 요리하고 잘 합니다.
아빠는 전자 기기 관련 잘 만듭니다.
그리고 저는 동동이를 잡는걸 잘 합니다.
동동이는 저를 피하는걸 잘 합니다.
엄마는 제가 말대꾸 하는걸 싫어 합니다.
아빠는 제가 놀자고 하는걸 싫어 합니다.
저는 감기 관련 싫어 합니다.
동동이는 엄마를 싫어 합니다.
잘못 하는 것은,
엄마는 즉각 시키, 아빠는 게으르고,
저는 폰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사귀는,
이모, 오오이모, 삼촌, 오오삼촌, 큰엄마, 옆집 언니, 옆집 동생,
오오호, 나나, 오오, 코코, 입니다.
엄마는 무서운게 없으시고 아빠도 없습니다.
저는 무서운 영화가 두렵습니다.!

(귀로미 재원이)의 온책읽기

책이름 : 겁보 만화



책이름 : 바보꽃

저는 66년 학프를 마치고 할머니와 같이 보건소에 갔다 왜 자인 생
어 습니다



(영양선생님)의 나는 3학년

제목 : 급식이 너무 맛있어요

우리 학교급식은 너무 맛있다.

이유는 영양선생님께서 깔끔하게 재료를 손질해 주시고 우리 영양 선생님은 착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급식이 아주 맛있어서 백종원과 요리 대결을 해도 무너지지 않을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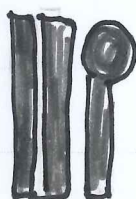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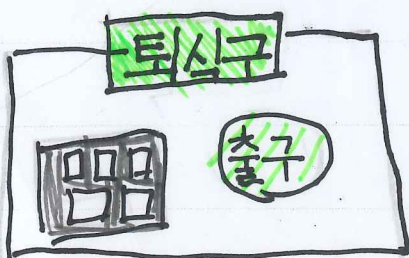
그만큼으로 우리 학교가 아주 맛있다는 증거.

다른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급식을 맛 보고 박수를치고 미식가들도 맛있다고

할것 같았고 영양선생님께서 학생이 먹는 급식이여서 너무 고생하실 것 같다.

영양 선생님께서 오랜 시간동안 밥을 주시니까 영양선생님께서 배가 고프실 것 같다.

영양 선생님께서 저학년 고학년 모두 사랑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예쁜 윤지)의 온채읽기

책이름 : 나는 3학년 2반 7번 애벌레

난 알에서 나와서 아무도 없고 혼자 있었지
내가 버섯을 알 껍데기만 있었어, 알을 깨느라
힘들었는지 배가고프더라. 알 껍데기를
아작아작 씹어 먹었어. 라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윤지

책이름 : 소동 발판은 호랑이



호랑이 발판이
이렇게 높아서
이런게 나와요.

호랑이 발판

소동 발판은 호랑이

행복한 우리)의 나는 3학년

제목 : <새학기 1기-도서>

처음에 학교를 갈 때 떨리고 긴장됐다. 선생님 이름은 최은주 선생님이다. 선생님이 동화책을 가져와서 2분 동안 책을 읽어 주셨다. 쉬는 시간이 왔다. 2학년 때 친구들을 보아서 반가웠다. 2학년 때에는 책이 4권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14권이 다 10권이 더 생겨서 엄청 놀랐다. 새학기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 민결이랑 운동장에서 구름 사다리를 해서 재밌었다. 그리고 전혁이랑 학교를 같이 다녀서 기분이 좋다. 다음 날 학교를 갈 때는 안 떨렸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할리갈리를 했다. 하윤이가 너무 잘 해서 친구들 카드가 눈 깜짝 할 사이에 없어졌다. 이제 떨리지 않고 학교를 갈 때 마다 입에 미소가 지어진다. 선생님은 착하고 친절하시다. 친구들과도 착하다. 친구들이 많아서 엄청 놀랐다. 그리고 점심 시간에 한 칸을 꼭 배워라 하였다. 3학년 친구!!

(행복한일)의 온책읽기

책이름 : 겁보만보꾼

이그림을한이유는 여마랑아빠
가울고만보도우는
엄마! 아빠! 감동이어서입니다



책이름 : 바보꾼



(행복한 진혁)

)의 나는 3학년

제목 : (바보꽃)

가람이에게

안녕? 나는 10살 진혁이야. 너는 아바랑 살다가
할머니랑 같이 살아도 아바한테 버거워졌다고

생각하지마. (할머니랑 같이 살는것도 행운일 수도 있어) 할머니

가 너를 위해 상가에서 끌어다 줄을 데이센집

아. 할머니가 너를 위해서 버려도 끄고 주시고

라면도 끌어 주시고

너를 위해 많은 것을 해주시니까 너도 할머니께 잘 해

드려. 너는 참 똑똑한 것 같아 발명 대회에서

1등도 하고 좋겠다.

나도 너처럼 똑똑하고 싶어.

그럼 할머니와 행복하게 잘 지내. 안녕!

2024년 9월

진혁이가.

(행복한진록)의 온책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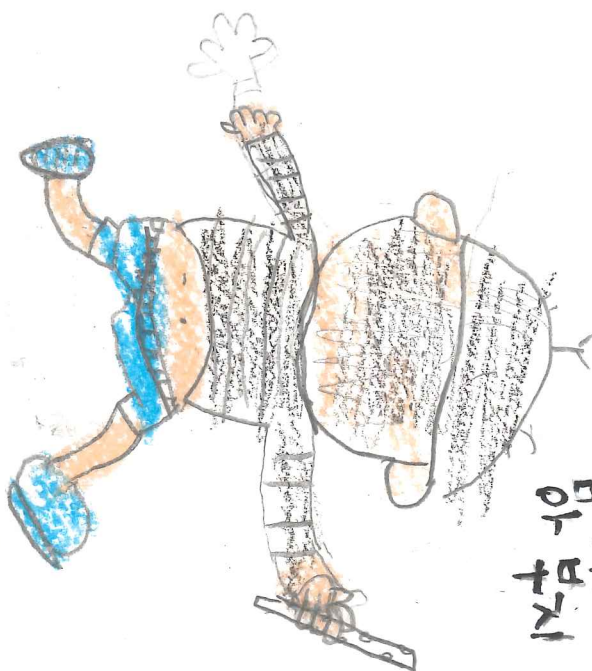
책이름 : 바보꽃



할머니가 손이 엄청 뜨거울거 같았다.
나는 이게 기어터 남는다

책이름 : 겁보단보

이제 겁이 없게 된다
겁이 나지 않게
한번 더 겁이 없게 된다



한번 더
한번 더

(레고를 좋아하는준원)의 나는 3학년

제목 : 거/임 체/험과 대/게 먹/기 그리고 대/관람차

우리가족은 아침을 먹고 게임 체험으로 갔다.

TV로만 보던 곳이었는 데 직접보니 신이났다. 게임 여러 개가 있는데 / 미션을 통과 하는 게임이다.

시간동안 이것 저것 왔다갔다 정신없이 게임을 했다.

그러다 보니 힘이 들었다. 그래서 정말 재미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D영상 체험도 했다 기분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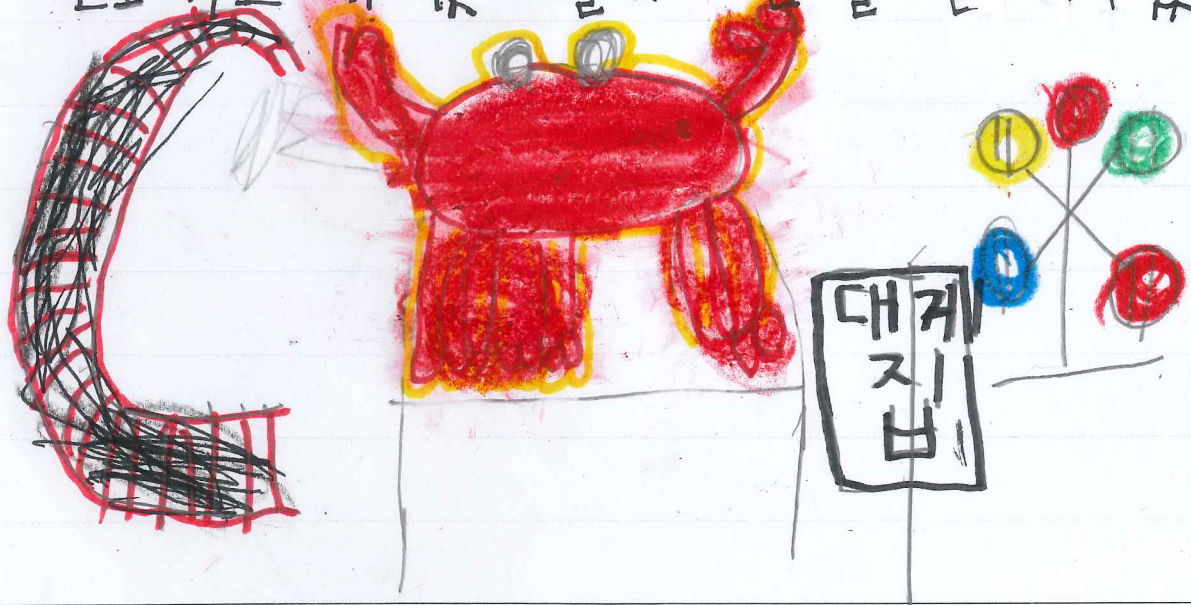
그리고 다음 장소 대/게를 먹으러 차 타고 이동했다.

대/게 집에도착해서 처음으로 대/게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대/게라면도 먹고 푸짐하게 먹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소 대/관람차를 타러 차로 이동했다. 도착해서 대/관람차를 탔는데 / 원형으로

한바퀴 도는데 정상이 올라가니 너무 무서웠다.

사진도 찍고 재미있게 놀았다. 참 즐거운 하루였다.



(국한준원)의 온책읽기

책이름 : 바보꽃



책이름 : 나는 3학년2반 애벌레



(운동을 잘하는 현우)의 나는 3학년

제목 : 재미있는 이야기

나는 오늘 7시 26분에 일찍 일어나서 생각해
본다. 너무 일찍 일어났다. 그런데 엄마
가 일요일인데 엄마가 아바바 회사에 같이
가라고 했다. 나는 아바바 회사에 생각해 본다.
일찍 아바바 회사에 온다.

형, 아바바, 나랑 같이 갔다. 나는 형이랑
나랑 같이 축구를 했다. 형이랑 포너스 놀이를

했다. 너가 포너스 놀이를 제일 좋아

했다. 나는 너무 목이 목말라서 물
을 마셨다. 시원했다. 나는 아바바 회사를

구경했다. 아바바 자리는 2층이었다. 나는

아바바 자리를 구경하러 갔고 싶은데

그런데 아바바가 일하러서 2층에 못 갔다.

아바바가 일하는 것을 나무로 만드는 일이었다.

아바바가 일하는 모습이 멋있었다. 아바바 최고!

(^{중립 우}_{은동은} ^{잘려}_는)의 온책읽기

책이름 : 만복이네 덕집



책이름 : 마법사 당면



(그림을 좋아하는 초보미)의 나는 3학년

제목 : 주말 이야기

오늘은 우리 동생을 잃어버릴 뻔 했다.
경기장을 가려고 했는데 동생이 안간다
해서 집에 놓고 왔는데 엄마가 뭔가 서한
느낌이 나신다고 하셔서 엄마가 "동생을 데리고
가자" 라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먼저
집으로 간다고 하고 집에 왔는데?!
동생이 없어진 것이었다. 근데 뒤에서!
현관문이 열렸다! 어머니가 동생을 데리고
오셨다! 나는 그때 가슴이 쿵 내려
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울음이
터져 나왔다. 동생은 핸드폰만 들고 마트
앞으로 나와서 울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엄마랑 나랑 동생이랑 한참 울고
경기장으로 출발!~ 했다.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아찔한 경험
이었다. 그래서 엄마가 동생이
안가면 엄마랑 나도 못간다 하셨다.
너무 위험해서 다음에는 동생이
안가면 나도 안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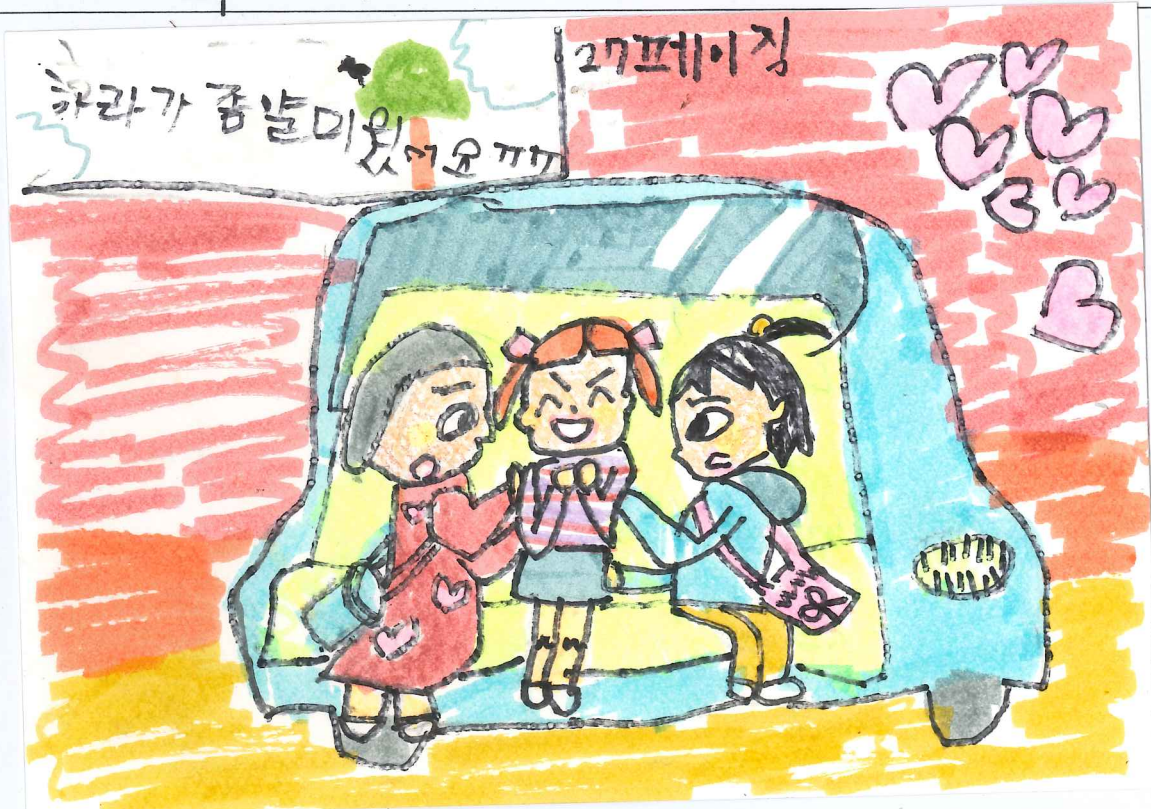
(수학실애는보미)의 온책읽기

책이름 : 겁부터보 ㄹ



저는 물개신이 나오는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면 만교가 팔이 여섯 개가 되어서 웃게나 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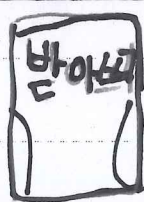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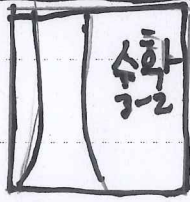
책이름 : 바보꽃 ㄹ



(제목을 잘하나라)의 나는 3학년 ♡

제목 : 추석 달에게 빈 소원

와!! 오늘은 추석이다!! 추석이라 달이 무지개
구나!! 빨리 소원 빌어야지. "언니 언니!! 빨리 소원 빌자"
언니가 말했다. "싫어 너 혼자 빌어" 그래서 소원을
빌었다. 나도 딱 친구들 처럼 공부도 잘하고, 미술
도 잘하고, 매일 매일 100점만 맞고 싶다.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푸는 게 내 소원이다.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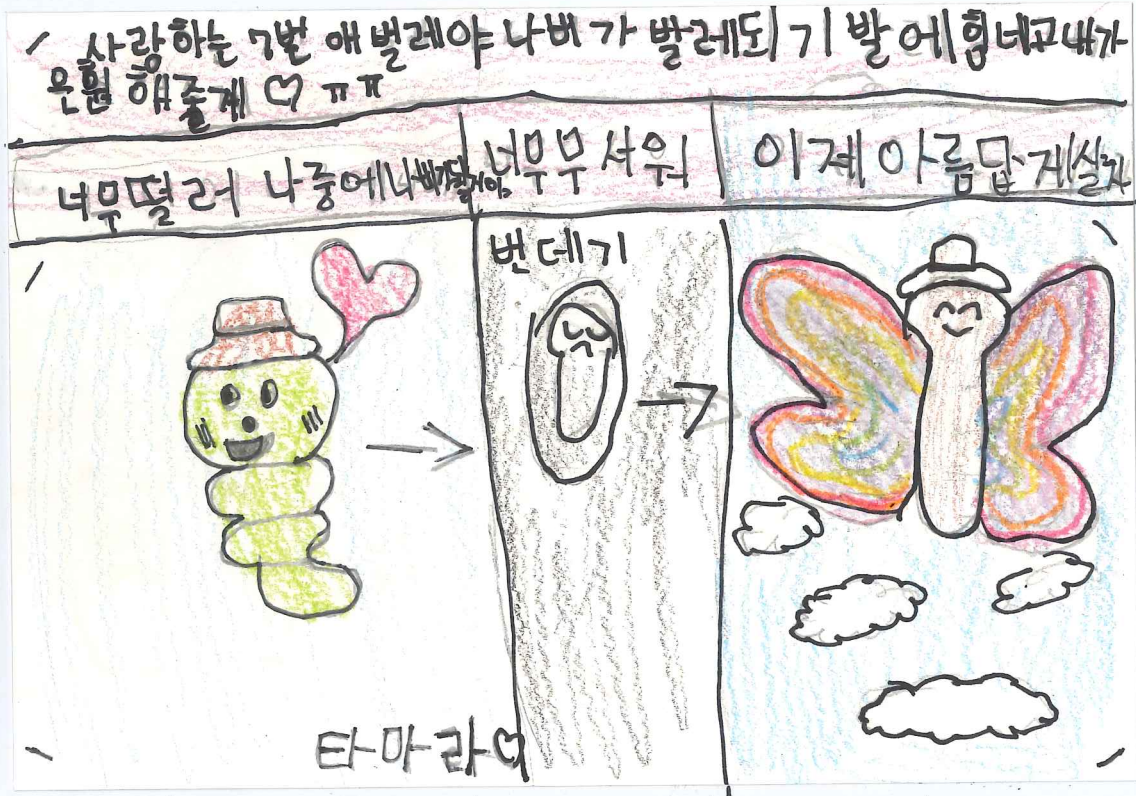


100점



(체육을 좋아하는 나)의 온책읽기

책이름 : 나는 3학년2반 애벌레



책이름 : 만복이네 떡볶이



(송의초가주문예)의 나는 3학년

제목 : 1학기 동안

1학기 때 학교는 좋았다.

좋았다. 인천 송의초등학교 학교는 좋았다.

체육대 히그에서 좋았다.

선생님도 천사이었다. 학교 전 학문은 나가서도 좋았다.

잘 했다고 생각했다. 생각할수록 좋았다.

친구들도 잘 친구가 되어 주었다.

유저용어강화해하는게 좋았음 것 같다.

친구들이 참 좋다.

송의초등학교! 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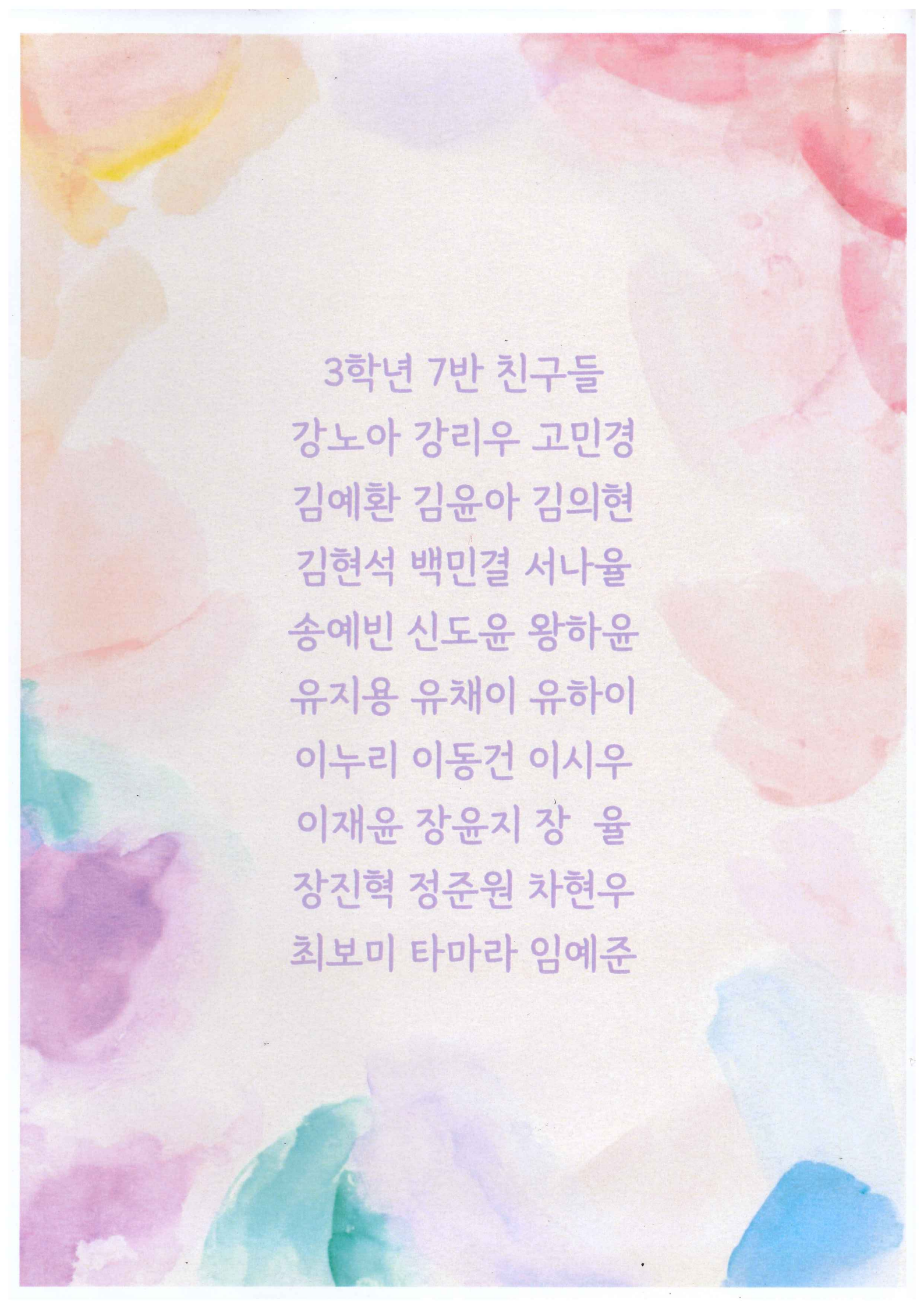
나는 3학년 1학기 수학 (이 예 준) 의 온책읽기

책이름 : 겁보만보



책이름 : 소꿉꿉은 호랑이





3학년 7반 친구들
강노아 강리우 고민경
김예환 김윤아 김의현
김현석 백민결 서나을
송예빈 신도윤 왕하윤
유지용 유채이 유하이
이누리 이동건 이시우
이재윤 장윤지 장 울
장진혁 정준원 차현우
최보미 타마라 임예준